

# “태고종 위상 격상·화합 최선”

##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호산 스님

“태고종 위상을 높이고 종도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9일 개원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한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호산 스님(사진)의 취임임성이다. 개원식과 함께 임기 4년 종무원장직도 시작했다.

호산 스님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종무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종무원장 키워드는 상생과 자비다. 호산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인재육성에 힘쓰겠다”며 자비의 싹 모금을 통한 장학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원 재정투명화와 함께 솔선수



범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종무원이 되도록 전 소인스님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산 스님은 종무원이 안정되는 대로 교육원을 개설할 생각이다. 스님은 “승가교육에 중점을 두고 등록사찰의 어려움을 항상 살피는 종무원이 되겠다”며 소속 사찰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올해는 호남불교 중흥의 해”

## 광주 직능·포교·신행단체 전법 다짐

새해를 맞아 광주지역 직능·포교·신행단체들이 호남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힘찬 정진을 시작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백남용, 이하 포교사단)**은 1월 18일 ‘신년 법회 및 광주전남 포교사의 날’을 시작으로 올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광역시청 불자회(회장 김상호)**는 2009년 신임회장 선출과 함께 회원들의 법회 참여 확대에 나선다. 이은 총무는 “올 해 중요행사로 산사체험, 사찰순례 등 특별행사와 매월 정기법회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포교의 마형격인 **광주 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 이하 교육원)**도 2009년 신년계획을 통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호 간사는 “작년 1기에 이어 성보해설사 2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며 “특히 작년 수료자는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주지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되는 것은 물론 각 전동사찰에 배치돼 답사프로그램의 안내자로 불교를 쉽게 알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료자 가운데 일부는 광주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지원금도 받게 된다.

이동배 사무국장은 “호남지역 간부수련회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 5~10개의 분회를

건설하고 불자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소년 음악놀이경연대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제6회를 맞은 대회는 2008년 30여개팀 공연을 1000여 시민들이 관람했다.

**전라남도청 불자회(회장 홍석태)**는 2월 5일 신년하례법회를 통해 2009년 계획을 시작한다. 법회에는 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도내 공무원 불자 등 사무대중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월 정기법회와 수련회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008년 초 창립된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고재업)**는 정기법회(매주 세 번째 목요일) 활성화와 경찰청내 마련된 법당에서 지속적인 기도회와 초청법회를 진행한다. 특히 봄·가을에 테마가 있는 산사탐방과 주말을 이용한 108배, 일일염불 등 특별정진법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회중 가장 활성화된 **동구청 불자회(회장 박종업)**는 2009년을 경전공부에 정진하는 한 해로 만들 계획이다.

노기욱 총무는 “1월 1회 정기법회와 함께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총무는 “1월 21일 신년하례법회와 수련회, 산사순례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육원은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과 호남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유적답사 프로그램인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7회부터 안동 봉정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2008년 초 창립된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고재업)**는 정기법회(매주 세 번째 목요일) 활성화와 경찰청내 마련된 법당에서 지속적인 기도회와 초청법회를 진행한다. 특히 봄·가을에 테마가 있는 산사탐방과 주말을 이용한 108배, 일일염불 등 특별정진법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회중 가장 활성화된 **동구청 불자회(회장 박종업)**는 2009년을 경전공부에 정진하는 한 해로 만들 계획이다.

노기욱 총무는 “1월 1회 정기법회와 함께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총무는 “1월 21일 신년하례법회와 수련회, 산사순례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육원은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 호스피스 병동에 퍼지는 다향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화순병원 茶 공양

매주 수요일이면 전남대 화순병원(병원장 범희승)은 차향으로 가득 찬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 등 지역불교계가 펼치는 빛과 사랑을 광주의 차봉사 프로그램 때문.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3년째 진행 중인 차봉사 프로그램은 광주지역의 사찰과 불교단체(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중심사, 원각사, 자비선행회)가 동참해 왔다.

1월 14일, 병원 로비와 호스피스 병동 중심의 전동차 잔치에는 환자와 환우가족은 물론 병원 관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찾잔을 기울이며 차향으로 온몸을 적셨다.

병원 관계자는 “늙자, 황자 등 전동차 뿐 아니라 떡, 다식 등이 장식 꽃과 어우러져 환자에게 큰 위안을 준다”고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완화병동)에서 진행되는 차봉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영순(59·함평)씨는 회장 앞으로 6개월째 투병 중인 며느리



1월 14일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차 공양 중인 한마음선원 신도들.

간호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씨는 “하루 종일 말기암 환자 병간호에 지치지만 차봉사가 있는 날이면 잠시나마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차 마시는 사람만큼 봉사자도 행복하긴 마찬가지. 매월 한차례 차봉사에 동참중인 박해소(한마음선원 광주지원)씨는 “환자, 환우가족, 의료진들 모두 오랜 병원생활에 지쳐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봉사는 박씨 외에도 매주 7~10명의 차봉사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도 불교인구 감소 중...

## 가톨릭 성장세, 불교 무주군서 강세

전북도의 불교인구가 감소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 가운데 10년 동안 도내에서 가장 성장한 종교는 가톨릭이며, 개신교와 불교 신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는 무주군, 개신교는 군산시, 가톨릭은 전주에서 강세를 보였다.

2005년말 기준 도내 전체 인구는 177만 8000명. 이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만여 명

(53.47%)으로 10명 중 5명은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10명 가운데 개신교인은 5명, 불교 2명, 가톨릭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조사에서는 무주군이 종교인구 중 50.1%가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신교는 군산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군산시 종교인구 중 57.52%가 개신교를 믿는다고 응답해 14개 기초단체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개신교 인구에 비해 교회수

가 많은 곳은 순창으로, 개신교 인구 47명당 1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종교인구 가운데 27.59%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응답해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다.

도내 불교 인구는 1995년 25.74%에서 2005년 23.9%로 감소했다. 개신교도 1995년 55.67%에서 2005년 49.15%로 불교와 같은 폭으로 신자수가 줄었다. 반면 가톨릭은 12.62%에서 21.34%로, 지난 10년간 신자수가 2배 가까이 (8.72%)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접한 전북지역 불교계 관계자들은 지역별·계층별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포교 전략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지장보살 원력 실천하러 노력해요”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前 전북포교사단장·군산 관음사가족법회 성광문 회장

“어제 즐겁고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만 저에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성광문 거사(前 전북포교사단장·사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2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눈 뜨고 동시에 지장보살님 전에 예경과 108배, 30분간 지장정근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성 거사는 하루마무리도 지장정근으로 한다.

“새벽에 일찍 ‘지장보살’을 염하면 하루 중 일 정근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새벽 정근할 때면 하루의 서원을 함께 담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광문 거사는 부처님 법을 만난 후 경전과 스님 법문을 들으며 불교 공부를 했다. 지옥중생을 하더라도 남김 없이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大願)에 매료됐다. “나도 그런 실천을 하리라”는 발원을 한 성 거사는 군산지역 불자들과 함께 수행단체 ‘지장회’를 만들었다.

지장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거사는 재곤 스님(군산 관음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인욕 등 육바라밀 실천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성광문 거사는 이후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수행하겠다는 발원을 구제화했다. 1995년부터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재소자 교화활동에 나섰다. 교도소 남사 법당에 음향시설 및 비디오 시설을 갖춰줬다. 여사 법당은 성 거사가 불사를 추진해 조성하기도 했다.

성광문 거사의 자비실천은 교

도소에 그치지 않았다. 매년 생활현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고 여름이면 선종기 30대를 군산시에 보시하고 겨울에는 50여 연탄난방 세대에 연탄 200장씩을 보시하는 등 성 거사의 자비실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또 성광문 거사가 운영하는 아주실업 직원 가운데 20여 명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 우선 채용해 장애인 등 장애인들

에게 새 희망을 줬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군산역 앞에서 소일하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열고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2008년 군산지역 거주 세터된 4쌍이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성 거사는 이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 주례를 맡기도 했다.

성광문 거사는 불교의 불모지라 일컫는 군산지역에서 전북포교사단장, 청년회장, 신도연합회 회장 소임을 맡아 불자들의 수행활동을 이끌어 군산불교회관이 개관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했다.

최근 성 거사는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게’ 열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살피는 성광문 거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지장보살의 자비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 (초혼·재혼)

삼보에 귀의하옵고

本佛院 慈悲會에서는 多文化 家庭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살비로써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同參하여 주신데 感謝를 드리며 앞날에도 慈悲로써 편달 바랍니다. 베트남 아가씨들과 인연을 맺어 왔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한족)과 인연을 맺어보니 대과없이 여러 쌍의 혼사를 치루어 아들 딸 낳고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며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한동안은 중국 조선족과 우리말이 통하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 불미스러운 이혼, 도주 등이 난무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도주 이혼 후 한국말을 잘하니까 식당 같은 곳에 취직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 현 실정이 중국 국가는 부자라도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엄청나게 격차가 심하여 농촌에 살기가 몹시 빈곤하므로 농촌 중국한족 아가씨들이 타국으로 결혼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 ① 실비 총 비용 - 350만원 (완납금 - 완전실비 제공)
- ② 중국 들어갈 때 - 200만원
- ③ 중국 갔다와서 - 150만원
- ④ 베트남 - 총 비용 1천만원

항공료, 호텔료, 서류작성 일체, 신분 한국입국 모든 일체

◆ 담당 : 만해 스님 회장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1-494-9595 / 전화 032)886-1661

# 海成佛院 慈悲會

## 사찰 연등 및 전선(범등용)

불제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기법과 설치기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원터치 연등같이 편

SMD LED전구(정품)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등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으로 사용

####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조를 및 초롱 줄이대

####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